

● 제30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1. 5. 3.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I. 결의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유용 의원 외 13명 공동발의
- 나. 제안일 : 2020. 10. 16
- 다. 회부일 : 2020. 10. 26
- 라. 의안번호: 1929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서울시는 2032 하계올림픽의 국내유치 도시로 문체부·기재부 승인 및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등 국제절차를 남겨둔 상태임.
- 남·북(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는 급변하는 남·북관계 정세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으며 체육 분야 뿐 아니라 교통, 미디어, 의료, 안전 등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바, 서울특별시의회에 2032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2018년 ‘9월 평양공동 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2032년 하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서울시의회가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2018년 남북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 하계올림픽대회’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남북체육분과회담(’18. 11. 2)에서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에 공동으로 전달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함.

#### <표-1> ‘9월 평양공동선언 中’

-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IOC 토마스 바흐(Thomas Bach) 위원장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 개최 의향을 발표한데 대해 ‘역사적인 제안’이라는 우호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sup>1)</sup>

1) IOC 위원장-남북 체육장관(도종환 문체부장관, 김일국 체육상) 3자회의(’19. 2. 15)

- 그러나 지난 2월 IOC는 2032년 하계올림픽의 우선 협상지로 호주의 브리즈번을 기습적으로 선정했으며, ‘우선협상도시’ 선정(2. 25)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토마스 IOC 위원장을 통해 2032 올림픽 개최지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sup>2)</sup>

<표-2> ‘올림픽 유치 추진절차’



- 이에 지난 4월 1일 서울시는 IOC측과 협의를 통해 올림픽 비전(‘Beyond the Line, Toward the Future’)과 5대 분야별 콘셉트 및 시설 마스터플랜 등을 담은 남북 공동개최 유치제안서<sup>3)</sup>를 IOC 미래유치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지속협의(Continuous Dialogue)를 통해 올림픽 유치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sup>4)</sup>임.

<표-3> 5대 분야별 콘셉트

- ▲ 첫째,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파괴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올림픽
- ▲ 둘째, 서울-평양 공동 개최로 모두가 함께하는 올림픽
- ▲ 셋째, 남북이 연결되고, 동서가 화합해 평화를 이루는 올림픽
- ▲ 넷째, 첨단 기술과 K-컬처를 통해 세계가 향유하는 올림픽
- ▲ 다섯째, 연대와 포용, 선수인권이 존중되는 올림픽

2)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 올림픽추진단」, 2021. 4. 29.  
 3) 집중협의 대비 IOC 제출용 분야별 유치계획서(6개 분야·93개 항목) 보완, 올림픽추진단, 2021. 4. 29.  
 4) 서울시 보도자료, 2021. 4. 1

- 또한 올림픽 유치 공조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인 ‘유치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IOC 대응, 남북협력 및 대회준비 등 분야별로 최종 개최지 선정에 대해 IOC 기준에 맞는 유치 전략 수립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표-4> 2032 하계올림픽 유치추진협의체(실무기구) 구성 및 기능

<p>◆구성 : 단장(서울시, 통일부, 문체부 차관급 공동단장), 워킹그룹 회의(기관별 국과장급 인사), 추진기관(서울시, 통일부, 문체부, 국정원, 대한체육회 등)</p> <p>◆기능 : 올림픽 유치 관련 기관 간 공조 및 추진상황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통일부, 문체부 등 주요 부처 간 업무추진 협력 지원, 서울-평양 실무협의 및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li> <li>- IOC에 대한 올림픽 개최 관련 중앙정부 보증 및 재정지원 협의 등</li> </ul>
---

- 현재 남북관계라는 큰 변수아래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와 협업·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한 상반되는 여론이 공존하고 있어 올림픽 공동 유치에 대한 열기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sup>5)</sup> 또한 불가피함.
-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과 같이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sup>6)</sup>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방송 및 뉴미디어 매체 활용한 계기별 전략적 홍보와 민주평통 협력사업(’ 20.5. MOU 체결) 연계,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2021. 4.

6)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3대 분야 10대 과제)

1. 사회문화교류 분야 : ① 문화체육

2. 경제개발 협력 분야 : ② 산업협력, ③ 전자정부, ④ 산림협력, ⑤ 환경협력, ⑥ 보건협력

3. 도시인프라 협력 분야 : ⑦ 도시재생계획, ⑧ 도로교통, ⑨ 도시안전, ⑩ 상하수도

- 또한 서울시가 국내 유치도시로 선정된 이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올림픽추진과)을 신설('20. 1. 10)하고, 실·국별 서울시 장기 비전에 입각한 차별화 된 유치계획을 준비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 부합<sup>7)</sup>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효 중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한 바, 구성 시 원활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활동시기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sup>8)</sup>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함.

7)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8) 제37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 붙임 1 정책비전과 목표

### 정책비전

2032 서울-평양올림픽 공동 개최로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

### 정책목표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올림픽 유치 추진기반 구축

- 유치준비자문단 구성운영
- 남북공동유치위 구성운영
- 국민유치추진위 구성운영
- 합동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IOC 유치 심사 대응

- 유치심사자료 제작대응
- 올림픽 시설 선정·관리
- 올림픽 유산 창출
- IOC 실사 준비

#### 올림픽 유치 공감대 확산

- 올림픽유치 홍보전략 수립
- 국제스포츠행사 개최·참가
- 대국민 홍보 프로모션
- 남북 체육·문화교류

## 붙임. 2 하계올림픽 역대 개최지(1896~2028)

1회~12회		13회~24회		25회~34회	
1회	1896년 아테네	13회	1944 [취소] 2차 대전 (후보도시2→런던勝)	25회	1992년 바르셀로나 (후보도시6, <a href="#">브리즈벤</a> 3차 투표 까지 감)
2회	1900년 파리	14회	1948년 런던	26회	1996년 애틀랜타 (후보도시6, 5차 투표)
3회	1904년 세인트루이스	15회	1952년 헬싱키 핀란드 (후보도시2)	27회	2000년 시드니 (후보도시5, 4차 투표)
4회	1908년 런던	16회	1956년 멜버른 호주 (후보도시4, 4차 투표)	28회	2004년 아테네 (후보도시5, 4차 투표)
5회	1912년 스톡홀름 스웨덴	17회	1960년 로마 (후보도시7, 3차 투표)	29회	2008년 베이징 (후보도시5, 2차 투표)
6회	1916년 [취소] 1차 대전	18회	1964년 도쿄 (후보도시4)	30회	2012년 런던 (후보도시5, 4차 투표)
7회	1920년 앤트워프 벨기에	19회	1968년 멕시코시티 (후보도시4)	31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후보도시4, 3차 투표)
8회	1924년 파리 (8회)	20회	1972년 뮌헨 (후보도시4, 2차 투표)	32회	2020년 도쿄 (후보도시3, 2차 투표)
9회	1928년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1회	1976년 몬트리올 (후보도시3, 2차 투표)	33회	2024년 파리 (후보도시2→LA 2028 개최)
10회	1932년 로스앤젤레스	22회	1980년 모스크바 (후보도시2)	34회	2028년 로스앤젤레스
11회	1936년 베를린 (후보도시2)	23회	1984년 로스앤젤레스	35회	2032 미정
12회	1940년 [취소] 2차 대전 (후보도시2→도쿄勝→헬싱키) ※ 일본이 중일전쟁으로 개최권을 헬싱키에 넘겼으나 2차 대전으로 결국 취소	24회	1988년 서울 (나고야 등 후보도시2)	36회	2036 미정

### 붙임 3 2032 하계올림픽 경쟁도시 현황

주요 추진 내용	
아시아태평양	<p><b>[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시 (인구: 228만, 호주에서 세 번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2028년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2016년부터 준비하고 있었음 (파리, LA동시 선정으로 무산)</li> <li>- 바흐 IOC위원장의 최측근으로 IOC 부위원장이자 호주 NOC(AOC)의 회장인 '존 코츠'의 막강한 영향력</li> <li>- 오랜 기간 준비한 자료와 여러번에 걸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2032올림픽 유치에 가장 앞선 평가받음</li> <li>- IOC가 호주를 선호 호스트(preferred host)로 발표 집중협의(Targeted Dialogue)단계를 시작했음('21.2.25)</li> <li>- 도쿄올림픽('21.7월)에서 최종 개최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중</li> </ul>
	<p><b>[인도-델리/뭄바이 2040년 올림픽 유치로 선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억 인구의 거대 시장으로 IOC에서 최고 가치로 인정받았음</li> <li>- 인도 NOC 회장, Narinder Batra는 2032 올림픽 대회 유치 경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20. 5월)</li> <li>- 파키스탄-중국과의 국경분쟁, 코로나 19로 경제위기 등 약재에 직면한 상황</li> <li>- IOC가 호주를 선호 호스트(preferred host)로 발표한 이후, 2040년 올림픽에 도전하는 것을 검토 중</li> </ul>
	<p><b>[인도네시아-자카르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OC 위원장과 '2032 유치관련 회담진행('20. 10월 초)</li> <li>- 조코위 대통령, 올림픽 유치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본격적 준비에 들어갈 것 지시('20. 11월)</li> <li>- IOC미래유치위원회와 화상으로 Continuous Dialogue 진행('21. 2월)</li> </ul>
	<p><b>[중국-상하이/청두-충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이(중국의 경제 중심지이자 단일도시 기준 최대 인구 보유), 청두-충칭이 2032올림픽 참가가능성 시사</li> <li>-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전망 불투명 / 홍콩 사태, 코로나 19의 발원지 등 약재로 국제적 비난과 이미지 실추</li> <li>- 너무 많은 스포츠이벤트 개최로 국제무대에서 식상</li> </ul>
중동	<p><b>[카타르-도하 2032 하계올림픽 유치 노력 지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하(Doha)는 2022 FIFA 월드컵 개최지이며, 2030 아시안 대회를 개최지로 선정된 스포츠의 도시</li> <li>- 작년엔 2032 올림픽 유치 의향서 공식 제출 ('20.7.27.)</li> <li>- 호주를 선호 호스트로 선택했음에도 2032 올림픽 유치에 대한 지속적인 대회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li> </ul>
유럽	<p><b>[독일-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2036년 유치도 고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설만으로도 경기의 80% 개최가능. 그러나 독일 내 부정적 여론 항시 존재, 주민투표제도로 번번이 무산됨</li> <li>- 독일(베를린)과 이스라엘(텔아비브)이 공동유치하는 안도 검토 중(2차 대전에 대한 회해)</li> </ul>
	<p><b>[헝가리-부다페스트 2036년 유치도 고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 전 국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압력을 받아 2024년 유치를 취소한 바 있음</li> <li>-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li> </ul>
	<p><b>[스페인-마드리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 '16, '20을 모두 노렸으나 실패, 새로운 체육장관 취임 후 재추진</li> <li>- 코로나 19로 심각한 경제위기 직면, 작년 2분기 성장률 -21%</li> </ul>
동구	<p><b>[우크라이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및 스포츠 장관(Vadym Huttsait) 2030(동계), 2032(하계) 올림픽 유치에 나설 것을 고려 중 표명</li> </ul>